

적립식 펀드 VS 변액유니버설보험, 어느 쪽인가?

투자 목적과 기간 따라 선택 달라져





김태형의 보험이야기

롯데홈쇼핑 금융사업부 MD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SERI부자연구회 재테크 교수위원
자산관리사 자격시험 강사
저서 <재테크 절대로 하지 마라>
트위터: twitter.com/samariain

형, 안정형, 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형, 인프라형, 해외주식형, 해외성장형, 브릭스형, 친디아형 등 10여 개의 펀드를 운용한다. 가입자는 중도에 펀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펀드에 원하는 비율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하나의 상품으로 여러 펀드에 나눠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적립식 펀드와 변액유니버설보험 비교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적립식 펀드보다 초기 사업비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원금에서 사업비를 뺀 나머지 돈으로 투자하므로 초기 수익률은 적립식 펀드에 크게 뒤질 수밖에 없다. 변액보험 역시 엄연한 보험상품이므로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운용수수료가 적립식 펀드에 비해 1~2% 포인트 낮으므로 같은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 10년쯤 지나면 적립식 펀드보다 유리하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원리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장점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도 나중에 연금 전환이 가능하므로 노후 대비도 겸할 수 있지만 노후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변액연금보험이 더 낫다. 연금지급기간이 늘어나면 같은 보험료로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급처럼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당연히 현재의 경험생명표(사망률)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 변액연금보험은 가입시점(현재)의 경험생명표를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지만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연금 전환시점(미래)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므로 같은 수익률이라도 변액유니버설보험이 불리하다.

“적립식 펀드가 좋아요, 아니면 변액보험이 좋아요?”
주식시장이 조금 뜨거워진다 싶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0년 이상 장기 투자라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이 낫고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하다. 그러나 중·단기 목돈을 만들 참이라면 적립식 펀드가 낫다. 쉽게 말해 투자 목적과 기간에 따라 금융상품을 달리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이 도대체 뭐지?

변액유니버설보험이란 간단하게 말해 보험상품의 기본 구조에 적립식 펀드의 자금 운용 방식을 가미한 일종의 퓨전 상품이다. 적립식 펀드와 자주 비교되는 것도 그래서다. 적립식 펀드 역시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전제로 탄생한 상품이지만 요즘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물며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변액보험이야 오죽하겠는가?

변액보험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상황에 따라 주식

상속이라면 보험이 유리

상속 문제가 걸린다면 적립식 펀드보다 변액보험이 월등히 유리하다. 보험은 상속자산의 가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다. 국세청도 매년 발간하는 '세금절약가이드'에서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두라고 조언할 정도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대개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만 남겨놓고 사망하면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느라 허둥대다 상속된 부동산을 헐값에 급매하거나 세금으로 물납해 경매에 넘어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세금 낼 돈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을 요량이라면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게 현명하다.

사족이지만 보험은 단순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 피상속인의 사후에 가족의 화목을 지켜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상속인이 여럿인데도 막상 상속된 부동산을 분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의 처분 등을 둘러싸고 상속인들 사이에 불화가 빚어질 소지가 크다. 적립식 펀드로 세금을 준비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중간에 인출해 다른 용도로 써 버리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세금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일반 금융상품을 통해 상속세 재원을 준비한다면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보험은 그러나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전액 비과세된다. 보험차익이란 만기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장기간 유지된 보험의 비과세 효과는 생각보다 크다. 더군다나 기타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면 그



10년 이상 장기 투자라면 변액유니버설보험이, 노후자금 마련 목적이라면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하다. 그러나 중·단기 목돈을 만들 참이라면 적립식 펀드가 낫다. 쉽게 말해 투자 목적과 기간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진제공_ 미래에셋증권

효과는 배가된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은 펀드의 운용 실적이 좋으면 기본 보험금에 더해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설령 투자 수익이 저조하더라도 최저 사망보험금은 보장받으므로 밀쳐야 본전이다. 이와 함께 유니버설 기능이 있어 여유 자금이 있으면 연간 2배 이내에서 보험료 납입액을 증액할 수도 있고 중도에 자금이 긴급히 필요해지면 해약환급금의 50% 이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 구분 | 적립식 펀드 | 변액유니버설보험 |
|-------|--|--|
| 투자목적 | 높은 수익률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률 |
| 투자기간 | 1~3년 | 10년 이상 |
| 운용 방법 | 펀드매니저의 역량이 수익률 좌우 | 시스템이 수익률 좌우. 고수익보다 꾸준한 적정 수익을 겨냥하므로 여러 펀드매니저들이 협동 운용 |
| 수수료 | 운용수수료가 2~2.5% 정도로 변액유니버설보험보다 매우 저렴하나 적립금과 수익이 커질수록 수수료도 비례해 커진다. | 사업비와 위험보장료 등으로 10~15%를 제외하고 펀드에 투자하나 운용수수료가 0.3~0.8%에 불과해 10년 이상 지나면 적립펀드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 세금 | 국내 주권 매매차익 : 비과세 |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
| | 해외 주권 매매차익 : 과세 | |
| | 채권 매매차익 : 과세 | |